



<‘흉악범죄 발생 예고 글 게시’ 모방 방지 지도 협조>에 관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흉기난동 범죄와 함께 살인 예고 등 흉악범죄 발생 예고 글을 SNS 등 온라인에 게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영웅심리로 모방하거나 장난을 빙자하여 인터넷 등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살인 예고’ 피의자 대부분 10대...이유는 “장난”
- 너도나도 ‘묻지마 살인예고’ 잡고 보니 중학생... “장난이었다” 등

흉악범죄 발생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경찰에서는 장난으로라도 그러한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등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인 만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모방이나 영웅심리로 장난삼아 올린 글이 하루아침에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4일

남 원 노 암 초 등 학 교 장

SNS 등 온라인 흉악범죄 예고글 강력처벌!

“심심해서... 장난으로... 범행 예고 10대 청소년 검거”

최근 SNS 등 온라인에 통해 흉악범죄 예고글을 올린 10대 청소년들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의 장난을 빙자한 흉악범죄 예고 글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장난삼아 올린 글이라도 이것은 큰 범죄입니다.

“살인예고글 작성자 엄정처벌 방침!”
촉법소년도 예외가 아닙니다.



형법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공포심·불안감을 주는 문자 등 전송>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라북도경찰청에서는 장난으로라도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여러분들도 장난삼아 올린 글로 인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절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경찰청